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2010. 10
통권 207호



2010년도 하반기 법왕사 법왕불교대학 기초(주·야간)·경전·참선반 신입생 모집

과 정	강의시간	강의내용	제출서류
경 전 반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신심명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3만원 (교재비 포함)
참 선 반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근본교리반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7시	불교사의 이해	
기초교리반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불교입문	

※ 학력,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입학 가능 합니다. 입교를 서두르세요.

※ 부처님 법을 배워 참된 불자가 됩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2011학년도 수능입시생을 위한 21일 특별기도 안내

법왕사에서는 21일 동안 수험생들의 합격성취를 발원하는 특별기도를 봉행 드립니다.
입시생 가족들은 지극한 정성으로 불보살님께 기도를 올려 그동안의 학습노력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축원드려 자녀들이 원하는 목표치가 달성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발원 드립니다.

• 입 재: 8월 5일
• 회 향: 11월 12일

※ 시험 치는 당일엔 시험 끝날 때까지 주지스님
집전으로 계속 기도 봉행

제37회 법왕사 추계경로잔치 한마당

저희 법왕사에서는 오는 10월 23일 토요일 오전11시부터 매년 2차례씩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정성스런 음식과 재미난 공연으로 하루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경로잔치를 봉행합니다.

경로잔치가 원만히 성취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도움 주실 분, 후원하실 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으니 함께 하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가는데 함께 동참바랍니다.

일시 : 10월 23일(토)

1부 - 경로법회

장소 : 법왕사 복지관 광장

2부 - 점심공양

후원 및 문의 : 법왕사 종무소 766~3747

3부 - 경로잔치한마당

※당일 공연에 무료출연 하실 분, 자원봉사 하실 분, 물품보시하실 분 연락 기다립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www.bubwangsa.or.kr

2010. 10
통권 207호



Contents

04 깨침의 향기

조계종 대종사 정무 큰스님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
본원스님

16 재미있는 불교설화

正祖의 독백

18 알아봅시다

중양절

22 웰빙푸드

토란
토란들깨탕

24 만화 불교이야기

송나라에 떨어진 명성, 의천 3

26 법왕사 소식

28 법왕사 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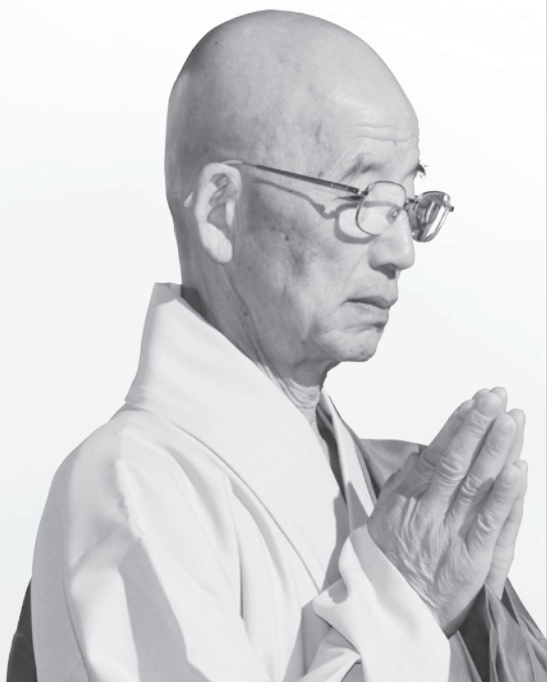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더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통권 207호 불기 2554(2010)년 10월 5일 발행

발행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잠 1길 2-9번지

종무소 T.(053) 766-3747 · 9088 F.(053) 767-6095 기 획 회주 · 정무스님 발행인 실상스님 편집위원장 원인스님
편집위원 영일, 현우, 정명, 무상, 지안 취재기자 박학순 디자인 전윤미 기획 · 제작 도서출판 풍경소리 053) 424-0144

조계종 대종사 정무 큰스님



「부모은중경」 으로 가정살리기 운동을...

1970년에 접어들자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고 산업화로 사회 전체가 한 쪽으로 몰려가고 있었다. 언제나 치우치면 부작용이 생겨나는 법이었다. 그런 현상의 시초는 70년대 초였다.

신라시대로 그 창건 연대가 거슬러 올라가는 고찰, 용주사는 원래 사도세자를 위한 정조가 세운 절이다.

말하자면 지극한 효심이 불심으로 승화된 그런 절인지라 자연스럽게 효와 관련을 갖고 있었다. 아울러 단원 김홍도가 그린 「부모은중경」 그림이 전국의 어느 사찰보다 훌륭한 것 또한 내가 용주사와 효를 관련지는 이유 중의 하나다. 그리고 나라가 바르게 서려면 개인의 가정이 제대로 서야 하고, 가정이 바르게 서려면 효가 정

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은중경」을 활용하여 가정 살리기 운동을 전개했다.

「부모은중경」은 부모의 은혜가 가중함을 10가지로 말씀하신다.

- | | |
|------------------------|------------------------|
| ① 뱃속에 잘 지키고 보호해 주신 은혜 | ② 낳으실 때 모진 고통 다 참으신 은혜 |
| ③ 낳고서야 근심걱정 잊으시는 은혜 | ④ 젖먹이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은혜 |
| ⑤ 쓴 것 삼키시고 단 것 먹여주신 은혜 | ⑥ 진자리 마른자리 같이 뉘시는 은혜 |
| ⑦ 목욕세탁 더러움을 씻어주신 은혜 | ⑧ 멀리 밖에 나가면 걱정하시는 은혜 |
| ⑨ 모진 일도 마다 않고 겪으신 은혜 | ⑩ 마지막까지도 자녀를 걱정하신 은혜 |

당시만 해도 「부모은중경」으로 가정을 지키기에 충분했으나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인지,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만 주장할 줄 알았지 은혜와 보은에 대해서는 생각하려 들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은혜를 알면 나쁜 짓을 절대 못한다. 용주사에 부모은중경탑비를 온갖 어려움 속에서 건립한 뜻도 거기에 있었

Home-saving Campaign by 『Deep Kindness of Parents Sutra』

In the 1970s, the Sae-maul (New Community) Movement began and the whole society was driven toward one direction under the name of the industrialization. Too much always causes harmful side-effects. The 1970s saw the beginning of such phenomenon.

Yongjusa, the temple whose foundation dates back to the ancient Silla period, was rebuilt by the King Jungjo for his father, Prince Sado.

As it were, since it was a temple where we can see the King's devoted filial piety sublimated to the Buddha's great compassion, it is naturally related to the filial piety. In addition, that the pictures about 『Deep Kindness of Parents Sutra』 painted by Danwon Kim Hong-do were better than any other ones in the domestic temples is one of the reasons that I relate Yongjusa to the filial piety. And if a nation stands rightly, home must stand rightly, and if home stands rightly, the filial piety must be established rightly. Thus, I started the home-saving campaign by utilizing 『Deep Kindness of Parents Sutra』

『Deep Kindness of Parents Sutra』 tells about 10 significant kindnesses of parents:

- ① The Kindness of Providing Protection and Care While the Child is in the Womb
- ② The Kindness of Bearing Suffering During Birth
- ③ The Kindness of Forgetting All the Pain Once the Child Has Been Born
- ④ The Kindness of Suckling the Child at Her Breast and Nourishing and Bringing up the Child
- ⑤ The Kindness of Eating the Bitter Herself and Saving the Sweet for the Child
- ⑥ The Kindness of Moving the Child to a Dry Place and Lying in the Wet Herself
- ⑦ The Kindness of Washing away the Unclean
- ⑧ The Kindness of Always Thinking of the Child When It Has Travelled Far
- ⑨ The Kindness of Deep Care and Devotion
- ⑩ The Kindness of Ultimate Pity and Sympathy

At those days 『Deep Kindness of Parents Sutra』 was enough to save Home, but now I wonder whether I should attribute it to the change of times, but it is a great pity that people assert only their own rights and freedom, not thinking of the kindness of their parents and its repayment. If one knows about the kindness, he cannot do a wrong thing. It was just such a purport that the tower and monument of 『Deep Kindness of Parents Sutra』 was established in Youngjusa in spite of great difficulties.

When I became a Buddhist monk, I felt that I deeply hurt my mother's feelings. So when I was propagating Buddhist doctrines in Youngjoo, I took my mother to the Tongdosa. Tongdosa is a great temple and is well-known for its solemn worship before the image of Buddha. After seeing the impressively grand worship ceremony, my mother finally approved my monkhood, saying "You

던 것이다.

나도 중이 되어 어머님 가슴에 못을 박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영주 포교당에 있을 때 어머님을 모시고 통도사를 다녀왔다. 통도사는 큰절이라 많은 스님들의 엄숙한 예불로 유명한 곳이다. 그 스님들의 장엄한 예불 모습을 보시고서야 '스님 노릇도 정신차려서 잘 해야겠다.'라며 어머님께서 마침내 내 중 노릇을 인가해 주신 적이 있다.

나는 대구에 있는 법왕사에 매달 한 차례 법문을 한다. 몇 해전 늦가를 추적추적 비가 내리던 날 법회를 마치고 안성으로 막 떠나려던 차에 처음 보는 보살 한 분이 문을 열고는 몸둘 바를 몰라하고 있었다. 나를 만나고 싶어서 왔다는 것이다. 그 보살을 들어오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으며 25년 전, 용주사 주지 시절로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났다.

자신을 허정화라고 밝힌 그는 수원에서 태어나 결혼해서도 수원에 살았는데, 신혼초부터 시어머님이 미신을 믿고 하여 집안이 늘 엉망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일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며느리인 그 보살 탓으로 돌려, 고단한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그 보살은 초등학교 때 소풍 갔었던 기억이나, 불교에 의지해야겠다는 생각에 용주사로 시어머님을 모시고 왔다는 것이다. 불자도 아니었던 터라 용주사로 와 누구를 만나야 할지를 몰랐으나 주지스님이란 단어를 생각해 내고 나를 만났던 것이다. 그때 내가 방문을 활짝 열고 반갑게 맞아주었다고 했다. 그리고는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내가 불교는 미신이 아니라는 얘기와 「부모은중경」에 관해 말했다는 것이다. 그 후로 보살의 시어머니와 보살은 불자가 되었고 그의 가정도 부처님 가피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시어머니와 함께 다시 나를 찾았지만 나는 다른 절로 가고 없어 미루고 미루다가 대구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구 법왕사에도 몇 번을 온 뒤, 그 날에야 비로소 용기를 내어 25년 만에 뵈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된 것이 모두 내 은혜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전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냐고 물어왔다. 나는 그가 78년부터 서예를 시작하여 국전에 입선도 했다고 하여 '열심히 글씨 쓰는 것이 부처님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말해주고 대구를 떠나왔다.

원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타인 중심으로 의식을 전환하는 데에서 그 해소책이 나온다.

입장을 바꿔 보는 것 이것을 역지사지(易地思之)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관계가 모두 아상(我相)과 이기심에 바탕을 둔 관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두 사람이 유별난 성격의 소유자라서 불화가 생기고 미신을 믿게 되고 무당집을 들락거린 것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두 사람 마음속의 이기심에 있었던 것이다. 아마 내가 그때 했다면 그런 이기심에 대해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불교는 우리 마음에서 출발하는 종교인데, 미신은 무슨 미신이냐고 핀잔을 주었을 지도 모른다. 아울러 그 보살에게 며느리로서 「부모은중경」에 있는 법문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아무튼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평온한 집안을 이룩할 수 있었고 행복한 가정을 가꾸어 갈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홀륭한 불자를 만나 흐뭇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돌아오는 차안에서 나는 그 보살이 한 말을 다시 떠올려보았다.

**‘매일 새벽마다 108배를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모은중경』 사경을 두 장씩 한다’는 말을...**

should act well as a monk.”

Once a month I visit the Bubwangsa Temple in Daegu to give my Dharma talks. A few years ago late at autumn on a rainy day, just when I was about to leave after my Dharma talks, a new woman Buddhist opened my door and was at a loss. She said she came to see me because she wanted to. I told her to enter the room and while hearing about her story I made a short time travel to the days when I was a chief monk at Yongjusa 25 years ago.

Introducing herself as Her Jung-hoe, she told me that she was born in Suwon and lived there after her marriage. She said that from the beginning of her marriage life her mother-in-law believed in superstition and her family affairs were always tangled up with mess, and that if things went wrong even slightly, she ascribed that to her, and she could not avoid a hard married life in her parents-in-law's home. At last owing to the memory of the primary school excursion, she decided to take refuge in Buddhism and took her mother-in-law to Youngjusa. Not being a Buddhist at that time, she didn't know whom to meet, but thinking of the word the chief monk she met me. She said that I had opened the door wide and given her a joyous welcome. And according to her, I had told her and her mother-in-law that Buddhism is not a superstition, and that I had given them a Dharma talk about 「Deep Kindness of Parents Sutra」. After that time, they became a Buddhist and lived in perfect harmony under the protection of the Buddha.

Afterwards, they went to Youngjusa to see me again, but found that I had gone to another temple, and put off the date of a meeting until they saw me in Daegu. She said that even in Bubwangsa in Daegu she had seen me several times, but didn't have courage to see me until that very day after the lapse of 25 years. With her eyes full of tears she said that my kindness made her lead a happy life today and expressed her sincere gratitude. And she asked me how she could repay the kindness. Since I heard that she started her calligraphy in 1978 and her piece of calligraphy was accepted for the National Art Exhibition, I told her that being absorbed to calligraphy was the repayment of the kindness of the Buddha and I left Daegu.

Originally the conflicts resulted from the human relationships are resolved only when we abandon our self-centered thoughts and put ourselves in other people's place. Putting oneself in another person's shoes is called Yuckjisaji(易地思之) in Chinese character.

However, we do not perceive that all our human relationships are based on our false self and egoism, and that we continue to act on the selfish and self-centered thoughts. Probably it is not because the woman Buddhist and her mother-in-law were persons of peculiar character that they had quarrels, believed in superstition, and visited the shamans. The problem was the selfishness in their hearts. If I had given them a Dharma talk then, it would have been about such selfishness.

And since Buddhism is a religion starting from our mind, in connection with superstition I would have reprimanded them personally. And to the woman Buddhist as a daughter-in-law I would have given her a Dharma talk on 「Deep Kindness of Parents Sutra」. Anyway, how blessed it is that she could live in peace and quiet and manage her happy home!

I felt pleased to meet a good Buddhist. On my way home that day, I recalled to my mind what she said: “Every early morning I practice 108 prostrations and copy two pages from 「Deep Kindness of Parents Sutra」 with a praying mind.”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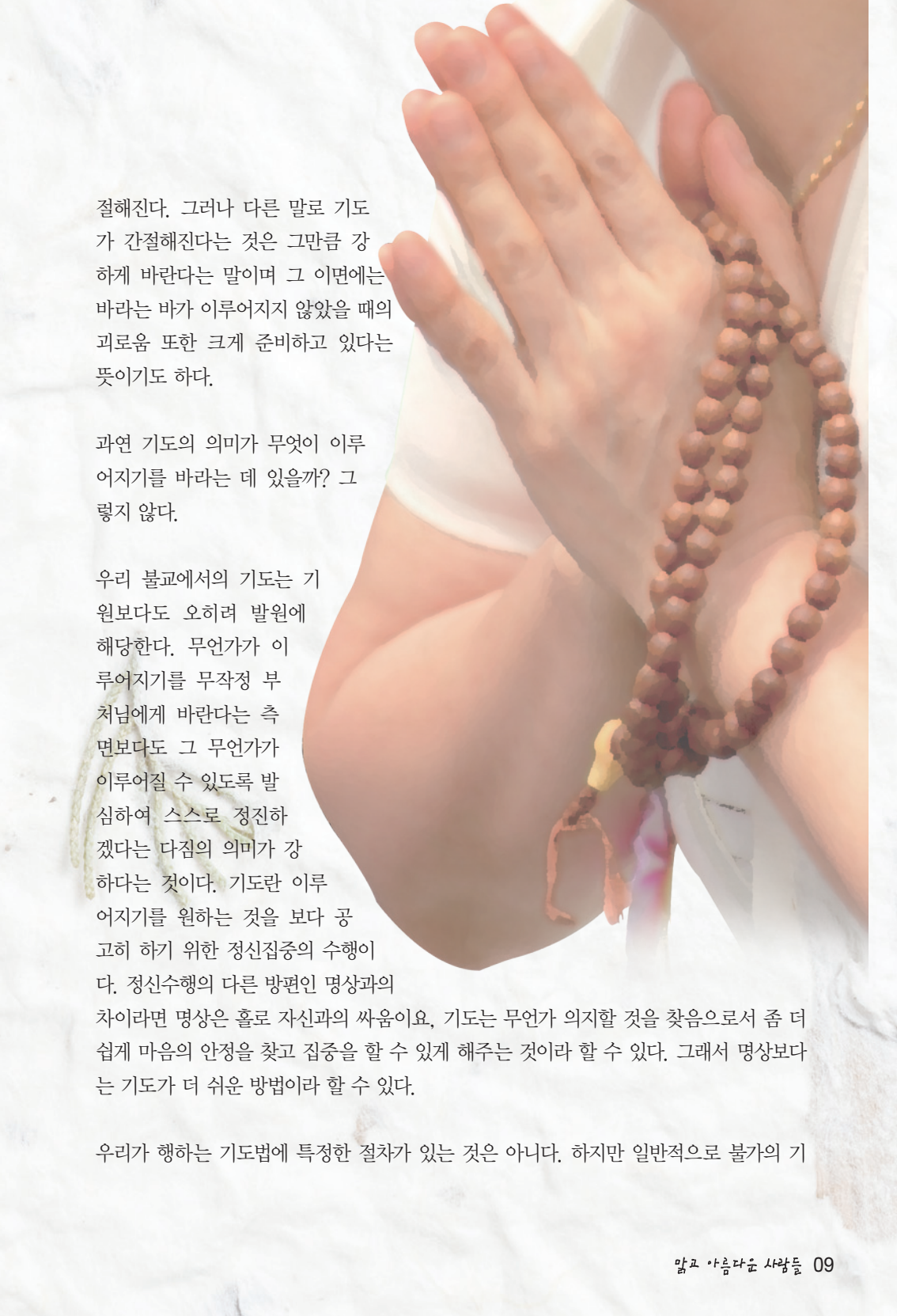


“기도하는 마음”

지금 이 맘 때면 전국의 산사가 기도의 인파들로 분주하다. 수능수험생들을 위한 입시기도며, 곧 있을 취업생들을 위한 취업기도, 연말에 있을 회사의 진급에 진급을 위한 진급기도 등 수많은 도량에서는 기도객들이 정성스럽게 불전으로 나아가 향을 사르고 절을 하곤 한다.

그 중에서도 어릴 때부터 해온 공부의 결실을 수확하는 수능수험생들을 위한 부모들의 기도야 말로 가장 간절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풍경들은 올 해 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것이다. 과연 이 기도객들의 마음 속에 기도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기도는 말 그대로 ‘비는 것’이다. 불교라는 종교를 떠나 모든 종교에서 기도는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비는 것이다. 그렇기에 원하는 바가 크고 강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간



절해진다. 그러나 다른 말로 기도
가 간절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강
하게 바란다는 말이며 그 이면에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괴로움 또한 크게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과연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 이루
어지기를 바라는 데 있을까? 그
렇지 않다.

우리 불교에서의 기도는 기
원보다도 오히려 발원에
해당한다. 무언가가 이
루어지기를 무작정 부
처님에게 바란다는 측
면보다도 그 무언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
심하여 스스로 정진하
겠다는 다짐의 의미가 강
하다는 것이다. 기도란 이루
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보다 공
고히 하기 위한 정신집중의 수행이
다. 정신수행의 다른 방편인 명상과의
차이라면 명상은 홀로 자신과의 싸움이요, 기도는 무언가 의지할 것을 찾음으로서 좀 더
쉽게 마음의 안정을 찾고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명상보다
는 기도가 더 쉬운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행하는 기도법에 특정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가의 기



도법은 삼귀의를 시작으로 참회, 발원, 정근, 회향 등의 순서로 행해진다.

첫째 삼귀의는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더불어 부처님의 법을 수행하는 모든 수행자에게 경애를 표하고 귀의한다는 마음의 표현을 함으로써 기도가 쇠되지 않게 보살핌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참회는 우리들이 살아오는 동안 스스로 알게 모르게 저지른 모든 악업들에 대해 반성하는 것으로서, 스스로의 이기적인 욕망들을 떨어버리고 마음을 비운다는 의미가 있다.

발원은 그 기도를 하게 된 이유나 스스로의 다짐 등을 불·보살님께 고하고 가피(불·보살이 자비를 베풀어 중생에게 힘을 줌)가 있기를 청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발원으로써 그 기도를 하게 된 이유나 스스로의 다짐을 불·보살께 고하고 더불어 불·보살님의 가피를 간절히 청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근(正勤)은 염불이나 진언, 절, 독경, 사경 등을 통한 삼매(三昧)를 수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법(善法)을 더욱 자라게 하고 악법(惡法)을 멀리하려고 부지런히 닦는 수행법이다.

마지막의 회향은 기도의 공덕이 두루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기원하는 것을 말한다. 회향(廻向)이란 자신의 공덕을 돌려서 밖으로 향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회향이라 할 때 회(廻)는 돌리는 것을 의미하고 향(向)은 그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중생과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스스로 행한 선을 돌려 향하는 모든 것을 회향이라 한다.

이처럼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결과를 얻고자 함이 아니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 결과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강인한 내적인 수행력을 쌓는데 있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비워지고 마음이 비워지면 결과에 대한 애착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며, 그랬을 때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의 참 의미가 아닐까? 기도를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목표를 반드시 이루기를' 바라고 집착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건 벌써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다. 기도와 수행은 아무런 이유가 붙어서도 안 되고, 그 어떤 조건이나 거래의 마음이 붙어서도 안 된다. 수행하고 기도하는 순간 이미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전히 이룬 순간인 것이지,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거나, 기도를 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거나 그런 분별이 붙는다면 그것은 부처님과 거래를 하자는 것이니 참된 기도가 아니다.

지금 집에 시험을 치르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도 하루에 조금의 시간이라도 내어서 기도를 권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기도의 참 의미가 마음을 비우고 애착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적인 수행력을 쌓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시험을 잘 볼 수 있는가? 아니다.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다. 하지만 평소 기도를 통해서 내적인 수행을 쌓았다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허둥대지 않게 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 평소의 실력대로 막힘이 없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의미인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아픔을 느낄 것이다. 인생의 아픔 속에서도 잠시 주춤거릴지언정 급세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 그 힘의 원천은 바로 '비움'에 있다. 언제라도 비우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잘못된 길에 들어섰더라도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성공에서 좀처럼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죽음에 이르러서는 그 모든 성공을 비워야 할 것이 아닌가. 그 때 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아직 마음을 비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기도가 필요할 때는 마땅히 기도를 할 일이다. 다만 합격이나 진급을, 어떤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어떤 결과 앞에서라도 내 안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당당해 질 수 있도록,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을 맑게 비울 수 있도록, 비움의 기도를 해야 할 것이다.

본원 스님

- 토굴 정진중 <지난호에 이어서>

무고한 불교 음해성 차별정책은 곧 망국의 길이다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의 참모는 정도전, 그리고 왕자의 난을 일으키며 왕세자로 책봉된 신씨소생 동생(방식)을 죽인 이방원(태종)의 참모는 하륜으로, 두 사람 다 유학자로서 불교를 배척하며, 조선을 유교 국가로 만드는데 기여를 하면서도, 둘을 서로 섬기는 주인이 다른 만큼, 대립관계에 있으면서, 뜻이 다른 정적일랑 무자비하게 해치는 잔혹성을 드러낸 자신들 또한 결국 똑같이 피 흘리며 죽임을 당하고 변방 오지로 축출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으며, 그리고 가장 극심하게 배불 탄 압정책을 행한 성종-연산군-중종때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왕실은 골육상잔으로 피비린내 났었고, 겹치는 왕손들의 단명과 폭군의 등장으로 피눈물을 뿌렸던 비사(悲史)로서, 학정의 연산군이 나오기까지 악을 씨뿌린 악연에 의한 필연적 과보였음을 알게 하는 <왕조실록>에는 그에

얹힌 일들이 상세히 씌어있다.

칠삭등이 한명회(1415~1487)의 음모와 책략으로 문종의 유지를 받들어 불안한 왕실을 지키던 김종서를 죽인 수양대군(首陽大君)은 계유정란(1453년)의 정변을 일으키며, 어린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서 보위에 오르니, 이가 7대 세조(재위, 1455~1468)이다. 세조의 등극 이후 단종 복위를 꾀하던 집현전 학자 성삼문·박팽년·하위지·이개(사육신)등이 계획한 거사는 발각되어 무수한 이들이 참혹한 죽임을 당한다.

왕위를 찬탈한 세조는 그러고서 얼마 후, 두 아들(예종·덕종)에 이어 세손마저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변고를 겪는 가운데, 온몸에 원인을 알 수조차 없는 부스럼(웜병)은 듣는 약이 없어 고통스러워하던 끝

에 명산대찰을 찾아 불전(佛前)에 참회기도(오대산 상원사)하면서 차츰 낫는다.

한편 부귀영화를 쫓아 무고한 살상을 즐겨하던 한명회는 중전 간택이 된 두 딸이 잇따라 급사하는 아픔을 맛보면서 자신이 저지른 악한 행위의 과보에 몸서리치며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조의 며느리이자 급사한 예종의 중전이었던 한 씨는 둘째 아들(자산군)을 보위에 올리니, 이가 9대 성종이다. 어린 성종은 인수대비(한 씨)의 수렴청정을 받는 가운데, 훗날 폐비가 되어 사사된 윤씨 소생의 어린 연산군을 왕세자로 책봉, 인수대비(할머니)의 엄한 지시 아래 교육을 시키나, 성종이 급사한 뒤 왕위에 오른 연산군은 생모 윤 씨가 폐비로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실록〉을 훔쳐 보고서부터는 이성을 잃은 듯 사나운 성격을 드러내며 생모 윤씨가 사사당할 당시에 벼슬자리에 있었던 생존한 정승과 판서들은 방관한 죄로 모두 죽임을 당하는, 이른바 갑자사화(1503년)의 피바람을 불렀고 인수대비(한 씨) 또한 세손인 연산군의 발길질에 숨을 거두었으며, 연산의 패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으니, 큰 어머니(성종의 후궁)까지 겁탈하는 등 만행을 일삼는 가운데, 이미 죽은 한명회는 부관참시(모를 파서 시신의 목을 자르

는 형벌)를 당했는가 하며, 바로 이 무렵, 폭군의 권력에 빌붙어 출세하려는 간신 유자광·임사홍 같은 자들이 득세하면서 그 반대파 사이에 인맥을 형성 시켰고, 이것이 훗날 뿌리 깊이 내린 망국적 파당·파벌 싸움의 씨앗이 씨 뿌려지면, 그 씨이 움을 틔운 것은 선조 때였다.

사람의 선·악의 행실, 거기에는 반드시 작용하며 상응하는 힘이 있으니, 마치 그림자 형상을 쫓고, 메아리가 소리 쫓음과도 같다는 인과(因果)의 법칙이다. 일찍이 증조부(세조)가 저지른(계유정란) 악행의 씨뿌림은 50년 모진 세월을 두고 피말리는 고통을 받으며 인과 연이 무르익으면서 〈금삼(錦森)의 피〉, 연산군을 낳았고, 왕으로서 연산군은 선대가 저질렀던 것과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골육을 피로 얼룩지는(갑자사화) 양갓음을 한, 얽히고 설킨 무서운 이 사건은, 그 누구도 인과응보(因果應報)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극명히 보여준과 동시에, 행위를 따르는 인과법의 실증에 관해,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을 일을 〈왕조실록〉은 생생히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의 예를 기억해 보더라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다. 이 나라 정부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가진 종교가 한결같이 기독교였다는 점과 함께, 그들이 민족종교인 불교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그야말로 무지와 편견으로 일관된 정책 반영으로 그 예를 일일이 다 들 수도 없는 술한 차별과 폄하 및 왜곡은 곧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평등권 침해이자 나아가 자주권을 짓밟는 부당함 힘을 매개로 한 그 같은 소행은 국민적 유대며 결속을 저해하고 정서에도 반하는 일일 뿐 아니라, 과거 천 년을 검증하고, 미래 백 년을 내다본, 민족의 선각자, 단재(丹齋)가 심히 우려한 바대로, 서구문화에 잠식되는 신(新)사대주의 사고와 행태에 젖어버려 ‘국가정의 실현의 민족적 과업인 대의명분’마저 스스로 저버리는 배타적이고 편협한 행위이다.

이승만(기독교), 장면(카톨릭), 박정희(無), 최규하(無), 전두환(기독교), 노태우(無), 김영삼(기독교), 김대중(카톨릭), 노무현(無), 이명박(기독교)으로 이어지는 정상들의 종교는 마치 기독교 공화국인양 열 사람 가운데 하나로 불교인이 없음이 의미하는 바, 그것은 국가 지배계급사회의 전반적인 풍토가 민족종교인 불교와 불교인을 공공연히 배제시키며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언제 단 한번이라도 이들 위정자들의 영도력과 덕치로 우리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다른 나라사람들처럼 삶이 풍요롭고 여유 있어 살만 하다고 하였던 날들이 언제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덕망 있는 지

도자 하나 없이, 늘 부패와 비리로 얼룩지고, 부도덕성과 무능력을 드러내며 씹쓸하게 끝이 나곤 했음을 그 때마다 실감하면서도, 정부요직은 여전히 기독교 정치인과 고위관리 일색으로 채워져 있음은 그 자체가 분명 국익을 해치며 국민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한다는 점이고, 기독교 선교사 100년에 비해, 불교 전래사 1,600년 역사로서 한반도 문화적 토양과 정신세계에 깃든 민족정서이며 유구한 선조들의 얼과 혼이 스미고 배인 이 나라에, 구미(歐美) 세계의 종교가 이 땅 하늘 아래에서 성장하며 득세하는 한, 국가의 참다운 번영도 국민의 참행복도 있을 수도 기대할 수도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충분히 지켜보아 왔듯이, 범신론적 포용과 다양성이 결여된 기독교는 화합으로 더불어 모두가 잘 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정도를 벗어나 오직 하나 뿐인 유일신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기며, 절대적 신의론(神義論)사상을 바탕으로 국정을 좌지우지 하면서 신학적 신학의 이해와 추상적 개념만을 중시하며, 매사 배타적이고 획일적이며, 내편이 아니면 곧 정적으로 간주하는 도그마적 흑백논리가 은연중 개입되는 까닭에 국사처리가 빈번히 난맥상을 보이는 보다 근원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다음호에 계속)



스님의 주례사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남녀 마음 이야기

저자 법륜 | 그림 김점선 | 출판사 휴

우리는 사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이해하는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꾸꾸는 남녀에게 쏟아지는 축복 같은 조언

‘스님의 주례사’라는 제목으로 오랫동안 인터넷을 통해 회자되며, 결혼 전 반드시 읽어야 할 대표적인 글로 화제가 된 법륜 스님의 남녀 마음 이야기들을 모아 책으로 펴냈다. 이 책은 남녀 간의 사랑과 연애, 성공적인 결혼생활이란 주제를

통해 세상에 공것이란 티끌만큼도 없다는 인과(因果)의 법칙과, 수레바퀴가 소를 따르듯 모든 인연 맺음에는 과보가 따른다는 것, 그러하기에 스스로의 마음발을 잘 다스려 자신만의 생을 피워 내어,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향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법륜 스님의 책 《스님의 주례사》는 단순히 남녀의 사랑과 연애,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한 방법론을 보여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의 질서를 일깨우는 인연론이자 스스로의 삶에 물음을 던지는 인생론이며, 다른 존재와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관계론이자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발을 일궈야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법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가 딸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사랑과 연애,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모든 지혜를 담고 있는 책!**

불교에서는 인간관계의 인연을 겁(劫)에 비유한다. 겁이란 1000년에 한 번 떨어지는 물방울이 사방 1유순(약 15km)의 바위를 뚫는 시간 또는 사방 1유순에 겨자씨를 가득 채우고서 100년에 한 번씩 겨자씨를 꺼내 강물에 빠뜨려 그 겨자씨를 다 비워 낼 시간이다. 즉 가능하기 어려울 정도의 오랜 시간을 말한다. 지구 안의 같은 나라에서 동시에 태어날 만한 인연이 되려면 1000겁의 인연이, 하루정도 같은 일을 하려면 2000겁의 인연이, 부부가 되려면 8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남녀가 이생에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듯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결혼 현실은 어떠한가? 누구나 결혼할 때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살다 보면 행복하기만 할까? 행복하기는커녕 결혼이 불행의 원인이 되기 쉽다. 배우자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되기 쉽다. 행복하기를 위해 고민 끝에 선택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불행하기만 하다. 스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왜 갈등이 생기는지, 행복하려고 한 결혼생활이 왜 괴로움 속에서 돌고 도는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즉 ‘상대에게 덕 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책 《스님의 주례사》는 오늘 또 다시 용감하게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에 대해 장밋빛 꿈을 꾸며 새로운 세상으로 모험을 떠나려고 하는 예비부부와, 이미 사랑이란 이름으로 결혼했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부에게 법륜스님이 전해 주는 축복 같은 인생의 지혜라 할 수 있다.

☞ 복소물리에 한마디!

〈스님의 주례사〉로 불리면서 오랫동안 인터넷을 통해 관심과 감동을 받은 저자의 글을 엮은 것이다. 어머니가 딸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고 싶어하는 결혼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가르침을 듣게 된다. 200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서양화가 김점선의 그림을 함께 담아내 결혼 전 선물로도 유용하다.

正祖의 독백

〈수원·용주사〉

「백성들에게는 효를 강조하는 왕으로서 내 아버님께는 효도 한 번 못하다
니…」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는 부친 장헌세자(사도세자)의 비참한 죽음이 늘 가슴 아팠다.
왕세손이었던 정조 나이 11세 때, 할아버지 영조는 불호령을 내렸다.

「어서 뒤주 속에 넣지 않고 무얼 주저하느냐?」

어린 왕세손은 울며 아버지의 용서를 빌었으나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영조는 뒤주에 못을 박고 큰 돌을 얹게 한 후 손수 붓을 들어 세자를 폐하고 서인으로 만
들어 죽음을 내린다는 교서를 발표했다. 그로부터 8일 후, 뒤주에 갇힌 사도세자는 28세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다. 어릴 때 목격한 당시의 모습이 뇌리에 떠오를 때마다 정조는 부
친의 영혼이 구천을 맴도는 것만 같았다.

「저승에서나마 왕생극락하시도록 돌봐 드려야지..」

정조는 양주 배봉산에 묻힌 부친의 묘를 절 가까이 모셔 조석으로 영가를 위로하기로 결심
하고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은 보경 스님으로부터 부모은중경에 대한 설법을 듣게 됐다.

「불가에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열 가지로 나누지요. 그 첫째는 나를 잉태
하여 보호해 주시는 은혜요, 둘째는 고통을 참고 나를 낳아 주신 은혜
요, 셋째는 낳아 기르느라 고생하신 은혜요, 넷째는 쓴 것은 부모가 먹
고 단 것은 나에게 주시는 은혜요, 다섯째는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 뉘어
주시는 은혜요…」

설법을 다 들은 정조는 부친을 위해 절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임금은 먼저 지금의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안령리 화산으로 부친의 묘를 옮겼다.

그리고는 가까이 있는 갈양사(신라 문성왕 16년에 세운 절) 터에 부왕의 명복을 기원하는 농사를 세우도록 했다.

왕은 보경 스님을 팔도도화주로 삼았다. 백성들은 비명에 간 사도세자를 위해 절을 세운다고 하자 너도 나도 시주를 마다하지 않았다. 보경 스님은 8만냥의 시주금으로 4년만에 절을 완성했다.

낙성식 전날 밤, 정조는 용이 여의주를 입에 물고 승천하는 꿈을 꾸었다. 이튿날 낙성식장에 친히 거동한 임금은 절 이름을 용주사로 명했다. 이 절이 바로 지금의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송상리에 위치한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다.

정조는 자신에게 부모의 은혜를 새삼 일깨워주고, 용주사를 세우는데 크게 공을 세운 보경 스님에게 승려로서 으뜸인 도총섭의 칭호를 주어 용주사를 관장하게 했다.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 그림 잘 그리는 화공을 찾아 부모은중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게 한 후 다시 정판으로 각하여 용주사에 모시게 했으니 이는 지금도 원형대로 잘 보존되고 있다.

또 임금은 궁에서 쓰던 명나라제 금동 향로와 야월낙안도(夜月落雁圖), 우중어용도(雨中魚翁圖), 촌중행사도(村中行事圖), 산중별장도(山中別莊圖), 고주귀범도(孤舟歸帆圖), 산사참배도(山寺參拜圖), 강촌심방도(江村尋訪圖), 효천출범도(曉天出帆圖)와 용을 정교하게 양각한 8면 4각의 청동 향로를 하사했다.

임금은 능이 있는 인근 수원에 화성을 쌓아 소경(小京)으로 승격시키는 등 비명에 가신 부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다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기일뿐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용주사를 찾았다.

어느 초여름날이었다. 능을 참배하던 정조는 능 앞 소나무에 송충이가 너무 많아 나무들이 병들어 가고 있음을 보았다.

「허허 이럴 수가. 내 땅에 사는 송충이로서 어찌 임금의 아버지 묘앞에 있는 소나무 잎을 갉아먹는단 말이나. 비명에 가신 것도 가슴 아픈데 너희들까지 이리 괴롭혀서야 되겠느냐.」

임금은 이렇듯 독백하며 송충이를 한 마리 잡아 이빨로 깨물어 죽였다. 그 이후로는 이 일대에 송충이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다. 지금도 용주사 주변과 용릉 지역은 송림이 울창하여 장관을 이루며 특히 용주사 주변의 회양목은 천연기념물 제10호로 지정돼 있다.

어느 가을날 용주사로 향하던 임금의 행차가 수원 못미쳐 군포를 지나 고갯마루를 오르느라 속도가 좀 떨어졌다. 가마 안에서 임금은 속이 타는 듯 호령했다.

「여봐라, 어찌 이리 더디단 말이나?」

「언덕을 오르느라 좀 더디옵니다.」

부왕을 그리는 정이 몹시 사무쳐 빨리 절에 다다르고 싶었던 왕의 심정을 기려 주민들은 이 고개를 「지지대」라 불렀다.

중양절(重陽節) - 양이 겹치는 길일

며칠만 있으면 중양절이 다가온다. 예전에 중양절에 대해서 소개를 하여 우리 범왕사 신도들은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어 이번 사보에는 중양절의 여러 이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한다.

중양절(重陽節)이란 음력 9월 9일을 가리키는 날로 날짜와 달의 숫자가 같은 중일(重日)이다. 중일 명절은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로 자세히 보면 우리가 민속 절기 중 중요한 날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날들은 모두 홀수 즉 양수(陽數)가 겹치는 날로 이 날들 모두 중양(重陽)에 해당하지만 특히 9월 9일이 더욱 길일이라 하여 중양절 또는 중구라고 한다. 이 날은 음력 삼월 삼진날 강남에서 온 제비가 이 때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 가을 하늘 높이 떠나가는 철새를 보며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중국에서부터 유래해 온 것으로 전해지는 중양절은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시대 이래로 군신들의 연례모임이 이날 행해졌으며, 특히 고려 때는 국가적인 향연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선 세종 때에는 중삼(3월 3일)과 중구를 명절로 공인하고 중구를 무척 중요하게 여겨 높은 대신들을 위한 잔치인 기로연(耆老宴)을 추석에서 중구로 옮겼으며, 또 중양절에 특별히 과거 시험을 실시하여 인재를 기리기도 하였다.

중양절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벌어지는데, 국가에서는 고려 이래로 정조(正朝), 단오(端午), 추석(秋夕)과 함께 임금이 참석하는 제사를 올렸고, 일반 사가에서도 제사를 지내거나 성묘를 하였다. 또 양(陽)이 가득한 날이라고 하여 수유 주머니를 차고 국화주를 마시며 높은 산에 올라가 모자를 떨어뜨리는 등고의 풍속이 있었고 국화를 감상하는 상국, 장수에 좋다는 국화주를 마시거나 혹은 술잔에 국화를 띄우는 범국 또는 황화범주, 시를 짓고 술을 나누는 시주(詩酒)의 행사를 가졌다.

국화절(菊花節)

국화(菊花)가 만발하는 시기라는 뜻으로 중양절은 국화주, 국화전을 만들어 먹는다. 국화주는 꽃을 따서 술 한 말에 꽃 두 되 꼴로 배주머니에 넣어 술독에 담아 뚜껑을 덮어둔다. 약주에 국화꽃을 띄워 국화주를 즐길 수도 있다. 국화전은 노란 국화꽃잎을 따서 국화 찹쌀떡을 만드는데, 삼월 삼짇날은 진달래화전을 만들 때 울무를 많이 쓰는 반면 가을의 국화전은 찹쌀가루를 많이 쓴다.

망제일(忘祭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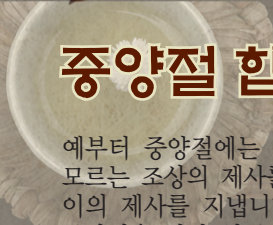
돌아가신 날짜를 모르는 조상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주는 날을 의미하며, 9월 9일 중양절에 제사를 지내준다. 중양절에는 집을 나가 객사(客死)하여, 죽은 날을 모르는 사람을 위한 제사를 지내준다. 지역에 따라서는 죽은 사람의 생일이나 3월 3일 삼짇날, 칠월 칠석에 지내기도 하지만 9월 9일에 지내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특별한 명칭은 없으나 이것을 제삿날 모르는 사람의 제사라고 하기도 하고 경남 함천에서는 무관제사라고 한다.





예로부터 중양절은 추석 때 나오지 못했던 햇곡식을 조상들께 차례 올리는 시기이다. 또한 농촌의 논농사를 결산하는 수확의 시기가 바로 중양절이다. 높아가는 가을 하늘을 오고 가는 철새들을 보면서 한해의 수확을 마무리 하는 것이 바로 중양절인 것이다.

-참고 문헌 : 국립민속 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중양절 합동 천도재 봉행

예부터 중양절에는 성주단지에 햇곡식으로 성주 차례를 지내며, 기일을 모르는 조상의 제사를 모시며, 연고자 없이 떠돌다 죽었거나 병으로 죽은 이의 제사를 지냅니다. 범왕사에서는 오는 10월16일(음력9월9일)토요일 중양절을 맞아 합동천도재를 모실 예정입니다. 천도재는 여러 불보살님께 재를 올려 영가들이 바른길을 찾아 극락왕생하도록 하는 의식입니다. 영가들의 죄업이 무겁고 크더라도 불보살님의 위신력에 힘입어 제도될 수 있도록 발원하는 것입니다. 조상천도는 참다운 효의 실천이므로 영가를 모신 불자님들께서는 모두 동참하시어 영가들에게 염불과 독경등 무상법문을 설해주는 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일시 : 불기 2554년 10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 3층 만불보전 ▲문의 : 766-3747





선재 스님

선재(善財)스님은 80년 경기도 화성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의 성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여러 선방에서 정진했다. 94년 중앙승가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으며, 졸업논문으로 <사찰음식문화연구>를 발표했다.

이 논문을 통해 그는 경전을 근거로 하여 사찰음식의 특징과 유형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이야기한 바 있다. 그후 그는 생명에 위협을 받을 만큼 심한 간경화를 앓게 되었고, 건강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사찰음식을 선택하게 된다. 95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불교TV <푸른 맛, 푸른요리>를 통해 사찰음식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때부터 보리사로 직접 찾아오고, 전화로 문의하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사찰음식에 대한 상담을 해주게 된다. [선재스님의 사찰음식]은 바로 그의 이런 경험이 바탕이 되어 만들어졌다. 현재 그는 여주 보리사에 머물면서 사찰음식 연수생들을 지도하는 한편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학과 겸임교수이자 선재사찰음식연구원 원장으로 사찰음식을 지도하고 있다.

토란 들깨 탕

재료 토란 400g, 표고버섯 4장, 두부 1/6모, 다시마(10cm)1장, 홍고추 1개, 들깨즙 1컵
들기름, 집간장, 소금 약간

1. 토란은 씻어서 껍질을 벗기면 손이 간지러우므로 씻지 않은 채로 장갑을 낀 채 칼을 얹혀 긁어내거나 손가락을 이용해 껍질을 벗긴다. 식초물이나 소금물에 손을 씻으면 가려움증이 없어진다. 토란의 끈끈한 점액질은 소금을 뿌려 문지르면 없어지지만 이 점액질에 풍부한 미네랄 성분이 있으니 완전히 없애지 않도록 한다. 토란은 껍질을 벗겨 찜뜨물이나 소금물에 삶아 건져 찬물에 행군다.

2. 표고버섯은 살짝 불려 적당한 크기로 찢는다. 불린 물은 그대로 둔다.

3. 두부는 0.5cm 두께로 썰어 노릇노릇하게 지져 한입크기로 찢다. 홍고추는 씨를 빼고 큼직하게 어슷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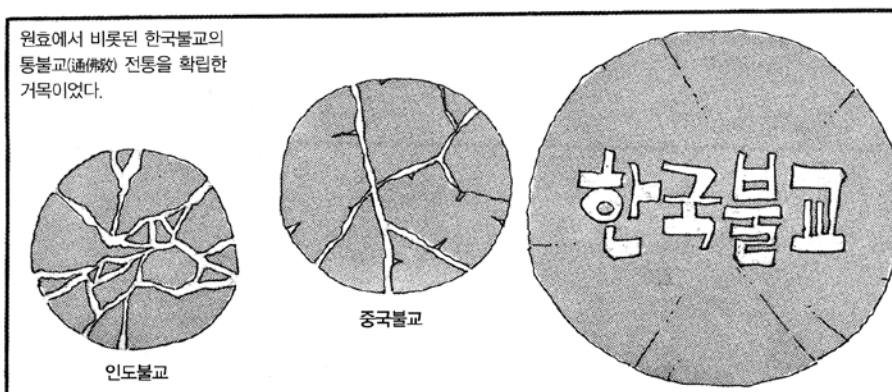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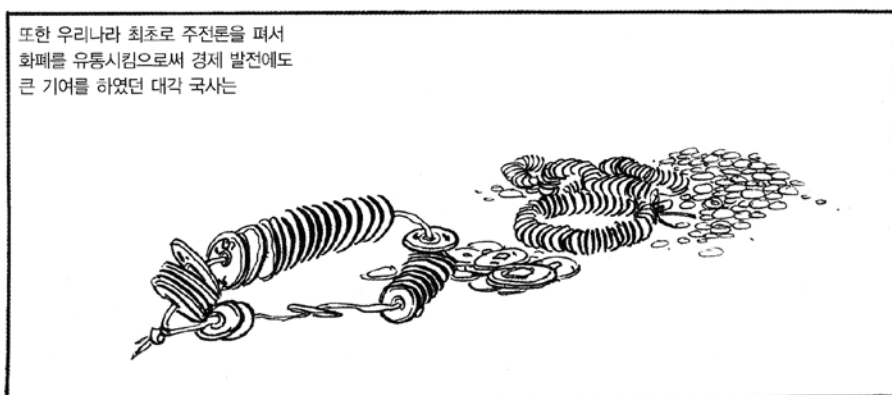
4. 들깨즙을 만든다. 들깨를 믹서에 물을 조금 넣고 간후 물을 부어가며 베보자기에 한 번 내린다. 걸쭉질이 들어가면 씹쓸한 맛이 나기 때문이다.

5. 냄비에 들기름을 두르고 손질한 표고버섯, 다시마를 넣고 볶는다. 여기에 집간장, 표고버섯 불린 물을 조금만 부어 끓인다. 물을 처음부터 많이 부으면 국물이 잘 우러나지 않는다. 국물이 끓으면 삶은 토란을 넣고, 다시한번 끓으면 (4)의 들깨즙과 남은 표고버섯 불린 물을 넣어 푹 끓인다. 음식에 들깨즙을 넣고 난 뒤에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국물이 넘치면 들깨의 고소한 맛이 달아나기 때문이다.

6. 거의 다 끓었을 때 소금으로 간하고 지진 두부와 홍고추를 넣는다. 들깨즙으로 국물을 낼 때는 좀 매운 듯한 고추를 넣어야 느끼하지 않다.

송나라에 떨어진 명성, 의천 3





※자료제공 : 저자 김정빈 | 그림 최병용 | 출판사 솔바람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법왕사 소식

- ※ 7월 4일부로 경주도굴에서 정진중이시던 무상스님께서 법왕사 선원장스님으로 부임하시어 불교대학 강좌와 토요일 시민참선교실을 지도하십니다.
- ※ 주지스님의 시봉이신 총무 소임 보시던 묘도스님께서 7월말로 소임을 그만두시고 8월1일 법주사 승가대학에 입학하셨습니다.
- ※ 7월 24일부로 서울에 계시던 지안스님께서 새로이 부전 소임으로 오셨습니다.
- ※ 9월 21일부로 중앙승가대학을 졸업 하신 현우스님께서 교무국장스님으로 부임하시어 불교대학 강좌와 태플스테이를 맡아서 지도하십니다
- ◎ 7월 24일 복지관 뒤편 20평가랑, 비닐하우스에서 꽃으로 불사하는 아름다운 마음 법향 야생화 전시실이 개원되어 화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법왕사 우담바라 합창단 임원진 재구성

6월 12일(음력 5월 초하루)부로 합창단 박경란(정인지)단장님께서 사임을 하시고 7월 27일자로 임원단들이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4년여 동안 고생 많이 하신 박경란 단장님께 감사드리며 새임원단 들께도 많은 활동 기대해 봅니다.

■ 제21회 백과좌법회 전야 산사음악회 개최

지난 9월15일 항상 수행과 포교의 중심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원력을 기울이고 있는 법왕사는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하는 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제21회 백과좌법회를 앞두고 산사음악회가 개최 되었다. 이날 참석한 수 백명은 법음의 향기에 맘껏 취하여 그야말로 신명나는 어울림의 한마당 잔치분위기로 진행되었으며 100일간의 여법한 백과좌법회를 기원하였고, 음악회가 끝난 후 냉장고, 자전거, 선풍기, 달마도등 푸짐한 경품추첨도 있었습니다.

■ 운전불자연합교육을 하다

지난 15,16,17일(3일간)법왕사 만불보전에서 운전불자연합정기법회 및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3일간 900여명이 동참한 교육에서 주지스님께서는 운전불자연합거사님들에게 부처님의 홍보대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고 열심히 정진하라고 설법하셨으며 이어서 주호영 국회특임장관, 영남일보 손인락사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 무량회 발족

지난 14일 주지스님께서는 지난 20년간 포교를 하면서 느낀 많은 경험으로 볼 때, 대적불사도 거의 완공되고 이제 어느 사찰 보다 으뜸가고 불교계의 중추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당당하게 법왕사를 움직이는 핵심멤버들과 불교대학 및 여러 신행단체 간부들을 모아 한량없는 모임이라는 뜻의 무량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이 모임은 신심으로 뭉친 불자들의 모임으로 정기법회를 병행하며 발전 지향적으로 나아가 내년 초에는 신도회도 출범시킬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 정기모임 : 매월 첫째주 화요일 11시
- 장소 : 3층 만불보전
- 자격 : 법왕사 신도로서 조계종 신도증 발급소지자



■ 대구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및 경로당을 다녀오다

지난 15일 선원장스님과 불교대학회장단들은 대구 이주노동자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냉장고와 쌀1가마니를 전달하였고 법왕사와 일촌을 맺은 경로당 3곳도 방문하여 각각 쌀 1포씩 훈훈한 정을 전달하였습니다.

■ 2011학년도 추계수능 100일기도 봉행

지난 8월 11일부터 봉행한 수능 100일 기도에 많은 입시생 가족들이 정성으로 불보살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그동안의 노력을 잘 회향할 수 있도록 법왕사 신도들 모두 정성으로 발원드립니다.

■ 법향 아생화 교실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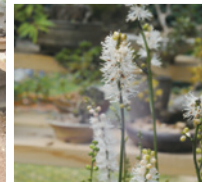
- 강사 : 이화영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법왕사 꽃배달 대행서비스

- 수익금은 법왕불교복지관건립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고품질의 꽃과 화분을 배달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 문의 : 법왕사 766-3747
권광명월(010-4228-7323)



법왕사에
야생화 보시러 오세요!



법왕사 게시판

새법우 명단

수성구 김중구 이영애 김영훈 김은지 권화순 김수진 김새미 김소영 김성우 김경환 김태경 김수빈
 김수지 박상기 김상희 박창범 박혜정 양재섭 이미경 양정우 양지훈 양지민 김종태 차순연
 김우성 김선호 배준호 김영주 배성우 민경원 김숙희 민지홍 민우석 정현숙 김오택 김경탁
 서 구 이경선, 문정은, 문호빈
 남 구 권대년 조연숙 권충균 권계향
 동 구 김호권, 임금실
 달서구 한광득 민외금 한준원 한지영
 북 구 김판암 이선이 김중수 김중우 김중윤 김동국
 기 타 김성환 최도식 백문기 최병문 최란정 김용도 김선숙 김윤정 김병권 김용도 김선숙 김윤정 김병권

평생위패봉안

ㄸ한산후인이소찬복영가 ㄸ의성유인김氏말봉영가 ㄸ성주유인도氏부자영가 ㄸ김해후인김기소태영가
 ㄸ김해후인김소태영가 ㄸ진양후인하소취하영가 ㄸ경주유인이氏영가 ㄸ김해유인김氏영가
 ㄸ진양후인하소진구영가 ㄸ김해유인김氏영가 ㄸ태령동남동녀애혼2위영가 ㄸ김영후인김소태권영가
 ㄸ밀양유인박氏점향영가 ㄸ신천후인강소래흥영가 ㄸ일성후인김소성복영가 ㄸ성산후인이소희균영가
 ㄸ밀양유인변氏금순영가 ㄸ진주유인강氏진옥영가 ㄸ김해후인김소영가 ㄸ일성후인김소성복 영가
 ㄸ성주후인이氏병원영가 ㄸ 해주후인오氏영가 ㄸ김해후인김소영선영가 ㄸ설성유인김氏태선

인등접수 하신 분

31 김두진 32 김민호 33 권준수 50 구제철 51 구재욱 52 구영미 106 서영성 360 이대엽
 369 석태호 370 주미영 371 석승환 372 석유진 260 배준수 427 김동언 640 이혜정 638 박진우
 639 박재우 485 강형구 486 정성향 ※ 지난 3월호 정정 안내 : 인등 250 주풍현 → 조풍현으로 정정합니다.

원불봉안 하신 분

3160김순보(관세음보살) 3161박동근(관세음보살) 3162황미선(석가모니불) 3163박준범(문수보살)
 3164박준용(보현보살) 3165정보석(관세음보살 中) 3166이일행(석가모니불 大) 3167이차일용(아미타불 大)
 3168강경석(관세음보살) 3169황영선(관세음보살) 3170강민주(보현보살) 3171강재욱(문수보살)
 3172이상백(아미타불) 3173이경선(관세음보살) 3174문정은(관세음보살) 3175문호빈(석가모니불)
 3176최명선(관세음보살) 3177김미소(문수보살) 3178김경민(보현보살) 3179최연우(보현보살)

원불 - 완납하신분

2982박상균(대일여래불) 3165정보석(관세음보살 中) 3044이복만(지장보살) 3045이중순(관세음보살)
 3032김상도(대일여래불) 3077최남구(대일여래불) 3097홍승규(대일여래불) 3098곽중란(관세음보살)
 3156김정은(문수보살) 3157김동한(관세음보살) 3159박범국(보현보살) 3134이차일용(지장보살)
 3178김경민(보현보살) 3177김미소(문수보살) 3176최명선(관세음보살) 3175문호빈(석가모니불)
 3174문정은(관세음보살) 3173이경선(관세음보살)

산신인등 접수 하신 분

50서정현 51송상윤 146정평수 235최효숙 236최병윤 237이준혁 260노승희 261김 윤 262김정운
263서정원 264최윤재

인등 접수 하신 분

657김진호 659강병국 660강종덕 532이병호 533이임선

왕생극락 하옵소서

- 박종욱거사님의 ㄸ업부 밀양후인 박장규영가님의 막제가 7월31일에 있었습니다.
- 이석한거사님의 ㄸ자모 전주유인 이점태영가님의 막제가 8월1일에 있었습니다.
- 김상원거사님의 ㄸ자모 밀양유인 박점향영가님의 초제가 8월14일에 있었습니다.
- 김현혁거사님의 ㄸ업부 안동후인 김해복영가님의 막제가 8월15일에 있었습니다.
- 안홍모거사님의 ㄸ자모 강릉유인 김필수영가님의 막제가 8월19일에 있었습니다.
- 김영권거사님의 ㄸ업부 김녕후인 김성호영가님의 기제사가 8월19일에 있었습니다.
- 도대록거사님의 ㄸ증조부 성주후인 도환용영가님의 기제사가 8월26일에 있었습니다.
- 김동현범우님의 ㄸ형님 김해후인 김해용영가님의 기제사가 8월26일에 있었습니다.
- 최용길거사님의 ㄸ업부 경주후인 최재수영가님의 기제사가 8월26일에 있었습니다.
- 권종오거사님의 ㄸ업부 안동후인 권영육영가님의 기제사가 8월27일에 있었습니다.
- 박종희거사님의 ㄸ업부 밀양후인 박정일영가님의 막제가 9월1일에 있었습니다.
- 박순환거사님의 ㄸ조모 전의유인 이우학영가님의 기제사가 9월7일에 있었습니다.
- 이석원거사님의 ㄸ자모 의성유인 김말분영가님의 막제가 9월8일에 있었습니다.
- 배윤자보살님의 ㄸ자모 달성유인 손계출영가님의 기제사가 9월10일에 있었습니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입상 설판

오진환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입상동참하신 분

이여범화 정영직 류영희 우정원 정연석 정연희 이일희 손진희 정낙교 류진화 정연은 정영미 정영순

불단 유리불사 동참하신분

묘도스님 최홍주 최치호 이수왕 이수임 심혜정 장지훈 조현봉 이재학

법당 단청불사 동참하신 분

신은학	김금강심	최재훈	최윤재	이승민	서갑임	한기영	장영숙	조만수	조중훈	배말선
박은주	이진달	이경선	김호권	임금실	정광춘	유은희	백상현	백승열	백인혁	신명균
구실상화	신승훈	신현수	신명재	신격기	신중백	신종태	권군덕	류윤만	이경숙	류희승
류주연	정지현	정충홍	정재훈	정주현	김부성	김옥숙	정성현	김동현	김채현	정우성
한현식	김정원	김향숙	한병덕	박경자	한현식	정성엽	김인수	김수라	김보리	김연정
김한솔	김태훈	이우연	이동희	이재학	김준식					

감사합니다

- **사보 도움 주신 분**
권오삼(1000부) 권오성(700부) 고은희(100부)
최옥란(200부) 차복희 조민수 김창숙 허정현(200부)
합창단(100부) 정시영(200부) 서상준(200부)
현미숙(200부) 장정선(300부) 구실상화(200부)
일심회(200부) 이마하심(100부) 홍공덕심(150부)
이재학(50부) 권화순(100부) 백대행심(50부)
박해진(100부) 최태희(20부) 박보현행(50부)
정안식(300부) 김순태(50부) 노수정(50부) 정광춘(50부)
- **돼지회향**
င�ဇဇဇဇဇဇ ဂဇဇဇဇ ဂဇဇဇဇ ဂဇဇဇဇ ဂဇဇဇဇ
- **초하루/대중공양**
이조원 김정은 권화순 이지송 심혜정 사물놀이 김준범
박동근 김남두 박상복 김순태 노수정
- **물품보시해 주신분**
우위태, 배숙자, 김선희, 청송삼계탕, 정안식
- **산신대중공양**
황래환
- **법공양**
안소영
- **양조공양**
차자인향
- **목탁 죽비**
김도희, 최명선, 이경선
- **법사비도움**
양지영
- **산사음악회 경품후원해주신분**
- 설판 : 이정상, 전옥남
- 김치냉장고 : 케리어(김성환사장님)
- 자전거 : 영범스님 합창단 거사림회 사물놀이 신아목재

창호(손사장님) 불교대학3기이강일동 권오성
오경화 င�ဇဇဇဇဇဇ ဂဇဇဇဇ ဂဇဇဇဇ ဂဇဇဇဇ
- 선풍기 : 이마하심 3대 불교대학2기일동 불교대학3기
주간일동 사공순옥 윤철옥 이상봉 조난숙
애플공인중개사 김경환변호사 정낙준
- 산사음악회 꽃공양 : 정안식 거사림회

- **백중물품보시해 주신분**
구실상화 조감로연 연실화 이윤하 오경화 정연이
원도연 장백련화 관음회 신장희 김순태 노수정
- **백중대중공양 -**
감로연 이수정심 문수성 보리자 이마하심 김창월
유명륜행 송옥순 백대행심 황춘연 권순조 이선자
주법등심 구실상화 황춘연 최병안 한희수 구실상화
오난옥 김호택 권귀정 김동한 이무량화 최태수
최태희 심규암 김명희 정심행 김현숙 이천지화 김수근
이정옥 이대자심 강소남 정영선 관자재 김정각행
이일심원 이선덕화 조일수 박분남 서영덕 김계숙
신영숙 박무착심 윤계한 이성자 안명희 김분용
이태숙 김호권 이정순 박계옥 이현우 임복두 이세정
주법등심 이필수 서금강심 문문화 김인수
- **공양미보시**
이매희 권무길 정영미 서광호 김상일 박정순 심혜정
박병기 한희수 김태환 정하균 박판곤 한정수 이무애
심 김만용 임인한 박재희 오진환 노동근 배경호
김두성 င�ဇဇဇဇဇဇ ဂဇဇဇဇ ဂဇဇဇဇ ဂဇဇဇဇ
최태희 채용자 김동한 사공순옥
- **백중떡공양**
조기수 박해진 김중학 이재학 이달희 김정순 권순교
김분용 심혜정 김주현 유해순 권상태 배원태 류윤만
박호숙 임분자 권혁만 김호권 김남두 서광호 이종순
이세정 남현우 손국곤 이바리말
- **백중과일공양**
이정상 이조원 강혜석 석승환 권혁진 류영훈

2010년 8,9월 CMS접수 하신 분

초하루, 축원

박정순 2만원	이영희 4만원	순향숙 2만원
김지연 2만원	전태일 3만원	이선미 2만원
송애자 2만원	정연이 4만원	이태현 2만원
진영덕 2만원	이범우 2만원	이영희 4만원
박정순 2만원	이선미 2만원	송애자 2만원
전태일 3만원	정연이 4만원	나형진 2만원

이범우 2만원	이태현 2만원	김지연 2만원
진영덕 2만원	순향숙 2만원	

인등

배세종 1만5천원	김경임 2만5천원	김명선 2만5천원
서금자 2만5천원	김분용 5만원	정순희 2만원
류윤형 1만5천원	신정옥 4만5천원	오창혁 1만원

전재호 1만원	이경숙 만5천원	이숙희 1만5천원
장옥주 1만원	장옥주 1만원	황국희 2만5천원
노수남 5만원	홍경숙 1만원	임상순 1만원
김명숙 3만5천원	황경란 1만5천원	이숙희 2만원
최인겸 1만원	최인겸 1만원	최유자 1만5천원
정분식 만5천원	김경의 2만5천원	최미숙 3만5천원
권정수 1만5천원	신인숙 만5천원	김영희 2만원
이선영 만5천원	강춘희 2만원	권수정 만5천원
김숙정 6만원	최동춘 1만원	한천숙 1만원
임상순 1만원	배세종 1만5천원	성상현 2만원
김명선 2만5천원	서금자 2만5천원	정순희 2만원
류윤희 만5천원	신정옥 4만5천원	오창혁 1만원
최유자 1만5천원	정분식 만5천원	김경의 2만5천원
전재호 1만원	성상현 2만원	권수정 만5천원
김숙정 6만원	최동춘 1만원	김명숙 3만5천원
최인겸 1만원	황경란 1만5천원	이숙희 2만원
이선영 만5천원	한천숙 1만원	이경숙 만5천원
이숙희 1만5천원	장옥주 1만원	노수남 5만원
홍경숙 1만원	김분용 5만원	신인숙 만5천원
김영희 2만원	권정수 1만5천원	황국희 2만5천원
정순희 2만원		

원불봉안

심규암 5만원	김명숙 5만원	유혜정 2만원
유해순 3만원	차미희 3만원	이호진 1만원
민병철 3만원	이호진 1만원	양영순 3만원
송화중 3만원	강창현 2만원	김점숙 2만원
강승구 4만원	김순희 2만원	홍정순 3만원
김금순 4만5천원	홍순녀 2만원	이종매 3만원
오지현 4만원	김영일 2만원	김순희 2만원
홍정순 3만원	민병철 3만원	심규암 5만원
김명숙 5만원	유혜정 2만원	유해순 3만원
차미희 3만원	이호진 1만원	김영일 2만원
강승구 4만원	송화중 3만원	오지현 4만원
김점숙 2만원	김금순 4만5천원	이종매 3만원

한평불사

오형호 3만원	나은숙 3만원	도경식 2만원
서필희 1만원	유명옥 3만원	손인숙 5만원
전복랑 2만원	임희경 2만원	정동준 3만원
김의환 2만원	신은영 5만원	유명옥 3만원
권해국 2만원	오형호 3만원	서필희 1만원

전복랑 2만원	도경식 2만원	임희경 2만원
손인숙 5만원	김의환 2만원	신은영 5만원
정동준 3만원	나은숙 3만원	

평생위패

정광춘(5만원)	정광춘(6만원)
----------	----------

증불사

김상한 4만원	김상한 4만원
---------	---------

108석등

사공순옥 5만원	문영자 2만원	이창형 3만원
조규인 3만원	조영자 6만원	윤경진 3만원
현미숙 2만원	조규인 3만원	현미숙 2만원
조영자 6만원	이창형 3만원	문영자 2만원
윤경진 3만원	사공순옥 5만원	사공순옥 5만원

삼존불

황금순 2만원

기타

이종랑 5만원	정영석 5만원	조전근 2만원
주석순 만5천원	김재현 1만원	이관수 12만원
김수정 1만원	황미선 10만원	서상태 2만원
전광환 2만원	시명관 10만원	김연자 1만원
강옥란 10만원	권명자 10만원	장영숙 10만원
채영주 1만원	손동림 만5천원	김영홍 15만원
이혜선 10만원	권홍자 10만원	정영미 만5천원
이종랑 5만원	조전근 2만원	이관수 12만원
정영석 5만원	주석순 만5천원	김재현 1만원
황미선 60만원	서상태 2만원	김수정 1만원
김연자 1만원	시명관 10만원	강옥란 10만원
권명자 10만원	남경순 2만원	남경순 2만원
장영숙 10만원	채영주 1만원	손동림 만5천원
김영홍 15만원	이혜선 10만원	권홍자 10만원
정영미 만5천원		

법왕사 중창 한가족 한평불사 권선문

불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처님의 도량을 여법하게 꾸며야 합니다. 준다는 마음도 없이 받는다는 마음도 없이 내가 기도할 도량을 내 손으로 만들겠다는 발원으로 한 가족 한 평의 기도 공간을 마련합니다. 부처님의 도량을 세우고 가꾸는 일보다 더 큰공덕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불사에 모두 수희 동참 하시고 이웃에게도 널리 권선 하시기 바라며 무량한 인연 공덕은 길이 길이 빛날 것입니다.

▲동참금 : 한평 100만원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은 가족2명의 이름을 화강석에 새겨 영원히 보존해 드립니다.

▲동참금은 3년간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법왕사 참선반 모집

- 일 시 : 2010년 8월 ~ 수시
- 입방일과 입방식 : 2010년 7월 31일 토요일 3층 만불보전
- 시 간 : 매주 토요일 오후 7시~9시(2시간)
- 장 소 : 만불보전 및 2층 교육장
- 입방비 : 월 2만원, 교재비(신심명)별도
- 연락처 : 종무소 ☎ 053) 766-3747



법고좌법회 야외 이동법회

법왕사에서는 제21회 백고좌법회 원만회향을 기원하며 오는 10월16일 서암정사, 화엄사, 죽림정사를 순례하는 이동법회를 봉행 드립니다.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으로 가을 단풍의 정취를 만끽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 일시 : 2010년 10월 16일
- 장소 : 서암정사, 화엄사, 태안사
- 회비 : 3만원 (점심사중제공)
- ※차량 및 공양예약 관계로 미리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백고좌 법회회향 봉정암 순례법회

산사의 향기를 따라 떠나는 봉정암 순례법회가 백담사에서 출발하여 오세암을 지나 봉정암에 도착, 철야기도를 하고 대청봉과 수렴동 계곡을 거쳐 내려오는 설악산 봉정암 순례기도법회는 누구나 가보고 싶어 하는 동경의 법회입니다.

살아생전에 3번만 봉정암 참배기도를 하면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몸 받아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번 봉정암 순례법회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 일시 : 2010년 10월29~31일(2박3일)
- 출발 : 29일밤 12시 법왕사 문화관 광장
- 동참금 : 10만원

법왕 불교대학 문화강좌

문화강좌에 신도님을 모집 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강좌명	강의시간(매주)	강사	수강료
합창단	(수) 오후 2시	정무시 선생님 (대한불교음악인협회장)	무료
사물놀이	(월, 목) 오후 3시	박성경 단장님 (환경문화예술단회장)	무료
불화그리기	(금) 오전 10시	만허영범스님	5만원
요리교실	(수) 오전 11시	황미선 선생님 (케이블TV 행복찬 방송진행)	6만원(재료비 포함)
한문교실	(화) 오후 2시	주지스님	1만원
시인교실	(월) 오전 11시	정숙 선생님 (현대문인협회 대구지회장)	무료
전통무용(한량무)		김미숙 선생님 (무용국악예술원원장)	3만원
서예교실		유영희 선생님 (경북서예학원장)	
야생화 교실	(금) 오전 10시	이화영 선생님 (대덕야생초)	3개월 10만원
다도교실	(금) 오전 10시	민정희 선생님 (우리치문화대은차원장)	
한지공예		김정희 선생님 (한지그림대구분과회장)	

백고좌법회 회향 보살계 수계 대법회



도문스님

100차 회향법문

조계종 원로위원/죽림정사 조실

법왕사에서는 제21회 백고좌 법회 회향을 맞아 조계종 대중사이신 불심 도문스님을 모시고 보살계 수계대법회를 봉행 합니다.

“경전에 의하면 계(戒)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으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수회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과 지혜를 닦고 생사해탈의 법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2월 9일 오전 11시 / 동참금 2만원

※ 법명 받으실 분은 중무소로 미리 접수 바랍니다.

제21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 봉행 안내

법왕사에서는 제21회 백고좌 법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회향일 전날에 맞춰 영가천도 49재를 봉행합니다. 조상 및 수자령 영가 천도를 통해 영가의 해탈을 돕고 걸림 없는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이끌어 주는 영가 천도 49재는 백고좌법회 기간 동안 영가들로 하여금 화엄경과 법화경 등 부처님의 법음을 고승대덕을 통해 듣고 하루 속히 해탈하도록 돕는 좋은 기회입니다. 불법의 위신력을 믿는 신심 깊은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구분	일자	법사스님	구분	일자	법사스님
입재	10월21일 (음9월14일)	마정스님 (용마관음사)	4재	11월17일 (음10월12일)	원일스님 (도안사주지)
초재	10월27일 (음9월20일)	상인스님 (정토사주지)	5재	11월24일 (음10월19일)	
2재	11월3일 (음9월27일)	관일스님 (묘림사주지)	6재	12월1일 (음10월26일)	실상스님 (법왕사주지)
3재	11월10일 (음10월5일)	해남스님 (전중앙승가대학교수)	회향	12월8일 (음11월3일)	정무스님 (조계종대종사)

동참계좌
안내

C M S 039-10-001382
대구은행 047-05-003698-6
농 협 702010-51-106490

문의: 법왕사 중무소 053)766-3747

PARADISE 수성 파라다이스 한증막

고품격 시설의 수성파라다이스 한증막에서 24시간 사우나 문화를 체험 해 보십시오!

다양한 부대시설에 저렴한 요금!! 온가족이 다함께 즐기는 사우나!!

각종 모임이나 가족·친구들과 함께 오세요!

쾌적한 공간에서 당신의 피로를 확실히 풀어드립니다.



사우나실



아이스방



원적외선



휴게실

부대시설

- 한증막
- 아이스방
- 남녀공동실
- 사우나(남, 여)
- 식당·스넥
- 주차장 완비
- 좌욕실
- PC방
- 야외정원 원적외선실

피톤치트향 소나무를 사용하여
전통방식 그대로 재현하였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불가마 및 사우나 시설 등
주차장까지 완비되어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수성 파라다이스 한증막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670번지
Tel : (053)766-8323 Fax : 762-0777



※두산오거리에서 범물동 방향 50m 우측 위치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제 21회

경·율·론(經律論) 백고좌대법회

삼 장(三 藏)

경전의 왕이라 불리우는 '묘법연화경'을 우리는 법화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묘법연화경이란 말그대로 진흙 속에서 더욱 빛나고 그 고귀한 모습으로 늘 그렇게 피어있는 흰 연꽃처럼, 더없이 아름다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바른 이해의 가르침입니다.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누구나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법화경을 100일간 100분의 고승대덕을 모시고 높은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이번 백고좌대법회에 두루 동참하시어 부처님 깨달음의 참정신을 배우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위분들에게도 권하여 함께 부처님의 품안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발원드립니다.

·일 시 : 2010년 8월 27일 ~ 12월 9일(100일간) 오전 11시 30분(법문)

·장 소 : 법왕사 신축법당 3층

·증 명 : 조계종 대종사 무진장 큰스님, 불심 도문 큰스님, 정무 큰스님

·문 의 : 법왕사 766-3747

*동참 신행단체, 숙식제공 가능, 사전 예약, 접수 바랍니다.



법만스님

39일차, 10월 9일
고창선사주지



원산스님

40일차, 10월 10일
통도사 백련암



지환스님

41일차, 10월 11일
울화사 금암선원장



수안스님

42일차, 10월 12일
통도사 측서암



수진스님

43일차, 10월 13일
해안정사 주지



우경스님

44일차, 10월 14일
동도사 학길



자광스님

45일차, 10월 15일
불교사회복지회 회주



정엄스님

46일차, 10월 16일
군포정각사 주지



효상스님

47일차, 10월 17일
가창선사주지



이동순대법회

48일차, 10월 18일
사명정사화엄사대인사



일진스님

49일차, 10월 19일
운문사 승가대학학감



보광스님

50일차, 10월 20일
조계종 원로위원



마정스님

51일차, 10월 21일
용마 관음사



암도스님

52일차, 10월 22일
담양 마하무량사



정현스님

53일차, 10월 23일
지장대사 주지



현각스님

54일차, 10월 24일
성불원장



항봉스님

55일차, 10월 25일
익산사지환주지



원순스님

56일차, 10월 26일
송광사 만월암



상인스님

57일차, 10월 27일
정토사 주지



마성스님

58일차, 10월 28일
팔리문헌 연구소장



현장스님

59일차, 10월 29일
보성 대원사 주지



해인스님

60일차, 10월 30일
계주약사주지



세준스님

61일차, 10월 31일
무생사주지



주경스님

62일차, 11월 1일
서산 부석사 주지



금담스님

63일차, 11월 2일
극락 선원 회주



관일스님

64일차, 11월 3일
묘림사 주지



채원스님

65일차, 11월 4일
마하사 주지



정엄스님

66일차, 11월 5일
불지사 주지



마가스님

67일차, 11월 6일
당신은미음의노예인가 주인인가



원각스님

68일차, 11월 7일
원각사 주지



덕산스님

69일차, 11월 8일
혜은사 주지



금종스님

70일차, 11월 9일
해광사 주지



혜남스님

71일차, 11월 10일
전종양승기대학교수



대현스님

72일차, 11월 11일
정암사 주지



원천스님

73일차, 11월 12일
김해선지사주지



정원스님

74일차, 11월 13일
봉선사 능엄학원 교수



해일스님

75일차, 11월 14일
사천달미사주지



해일스님

76일차, 11월 15일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잠 1길 2-9번지 ☎ 053) 766-3747